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연꽃을 만나다

연꽃은 흐려 심청이가 양궁에서 물 밖으로 타고 나갔다는 선화로 알려진 꽃이다. 연꽃은 흙 속에서 올라와 화려하게 피어난다. 그래서 통글고 원만한 모양의 연꽃은 예로부터 학자들은 군자의 성품으로 비유되었다.

그 잔과이자는 몰라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

늘 그랬듯이, 별생각 없이 교부살을 나갔다. 그리고 보내기를 마친 눈을 바다보며, 다치, 내 눈이 늦어 깨기 올라가보 호호했다.

저 멀리 보이는 연분홍 향기 가득한 논밭을 신선처럼 걸었다. 별생각이 없이, 눈에 보이는 연꽃이 예뻐 보이질 않았다. 아마도 기억된 회로에서 건지 인지하고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한다. 기대에 기대하고 다음이 앞서 슬리퍼가 벗겨지는 균열에도 씩, 웃으며 연꽃 다발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박여범

음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눈에 담은 연꽃은 작고 소박하다 못해 빈대가 작별 자리 작은 시골 촌 논처럼 다가왔다. 기대가 커면 실망이 커지는 법이 딱, 그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느 날, 기대 없이 만난 연꽃은 공극동굴 연분홍 촘사위에 휘둥그레 커진 눈동자를 가득 채워준다. 거기 예나가 사악 스으으속 소리를 내며 아련하게 터지고 터지기를 권추지 않는다.

눈에 자리를 작은 개구리 가족, 물오리 가족, 무렁이 가족 모두 다 한

계, 앞 다부터 연꽃 만나기 뽕을 뽕 울 전젠더 된다. 이때, 이웃집 백구가 연꽃 향기에 취해 쿵쿵 뽕뽕 따라 따라 따라고 뽕 뽕 뽕이 나눈다.

연꽃 가득 용담이에는 언제 나왔는지 범속이가 교추삼거리 따라 뽕네 마신 나와 있다. 키친 범속이는 깃가에 연꽃 한 송이 깃들어서게 자리를 작으니, 알 수 없는, 옅은 디소만 가득 가득하다.

난, 오늘도 연꽃을 만난 행복할 비명을 소리 없이 질러부다.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지국이 미러브며

마음이 버무는 그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시 한 편을 끄적끄적해 보았다.

몽글몽글 연분홍 촘사위에 휘둥그레 커진 눈동자 가득

사악 사악 스으속 아련하게 터지고 터지는

개구리 가족 물오리 가족 무렁이 가족, 앞다부터 연꽃 만나기 뽕뽕뽕을 전젠더 되고

연꽃 향기에 취한 이웃집 백구가 쿵쿵쿵 뽕뽕 따라 따라따

교추삼거리 따라 동네 마실 나온 범속이 깃가에 피어는 꽃송이엔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만 가득 가득하다

박여범 <연꽃> 전문

사설

사람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람 중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 온 전통적 기업과는 크게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사업체,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며 운영 방식에서도 친환경적, 민주적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에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1년 정부에 담당 부서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1만5,000여 개가 설립되어 80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보완하는 대형 협동조합들이 발달해 있으며, 기업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그레이스톤 베이커리, 하우징 워크, 미국 캘리포니아의 루비론 프로그램, 캐나다 온타리오의 키즈링크, 영국의 빅이슈, 런던심포니 오케

스트라, 제이미 올리버 레스토랑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들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단체와 민간 연구자들이 실업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 뒤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출범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는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혼합형 등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윤을 기업 또는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갈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연결하고, 지역사회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어느 의원의 의정 공백 문제

전북 도내 어느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구속돼 의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의원은 비록 1심이지만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내년 2022년 1월 31일까지 형이 확정되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1월 31일을 넘겨 4월 30일까지 확정되면 2022년 6월 1일 지방 선거일에 치러진다. 그리고 내년 4월 30일을 넘겨 확정되면 2023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은 연말까지 끝나야 한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규정보다 두 달을 넘기면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년 4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2023년 내후년 4월이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구속된 의원이 풀려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공백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의원의 횡령과 배임 사건도 유죄 판결을 예측하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의 자금이 위법하게 사용된 사실도 인정됐다. 추가로 문제가 된 횡령 사건도 공식적거부 사건을 맡았던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안사업 처리를 아무리 빨리해도 발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역이다.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전북 정치력의 약화마저 우려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정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관계가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자진 사퇴하는 결정도 필요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이티 대통령 암살, 관저 부근 모인 기자들



7일(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관저 부근 거리 벽화 앞에 기자들이 모여있다. 이날 새벽 모이즈 대통령이 관저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암살당하고 부인도 총격으로 중태에 빠졌다. 클로드 조셉 아이티 임시 총리는 국민에게 "진정하고 평정을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잉글랜드 결승 진출, 환호하는 거리 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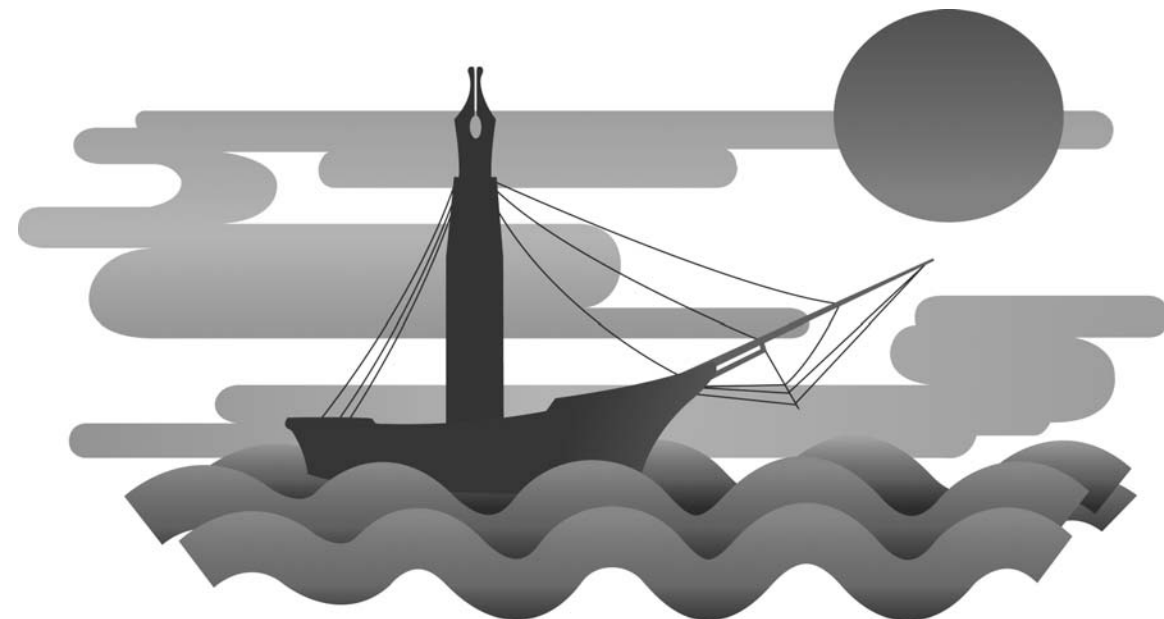
잉글랜드가 덴마크를 꺾고 유로 2020 결승전에 진출하자 7일(현지시간) 런던 시내에서 축구 팬들이 버스에 올라가 환호하며 축하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앞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유로 2020 덴마크와의 준결승전에서 덴마크를 2-1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